

계룡산 도예촌 건축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Space of Mt. Gyeryong Ceramic Art Village

송희정* 이왕기**
Song, Heejoung Lee, Wangkee.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residential district structure of Gyeryong ceramic art village in Gyeryong ceramic art village is a residential district for potters who succeed to and develop Gyeryong ceramic art. The external appearance of Gyeryong ceramic art village seems like being fixed and simplified.

The creative space is either detached or attached to a living room. The relation between inner and outer space is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a garden. In the characters of major spaces, the formation of a workshop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house. And, an exhibition equipment and an oven are connected to the workshop.

According to the study, a house, which is designed without an architect's help is simple and has a different form from a house designed by an architect.

키워드 : 계룡산, 도예촌, 전원주택, 평면분석

Keywords : Mt. Gyeryong, Ceramic Art Village, Suburban Houses, Analysis of floor Plan

1. 서론

이 논문은 도예창작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작가들이 직접 계획하고 만든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 도예촌의 배치 및 건축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 도예촌은 건축가의 도움 없이 도예창작 예술가들의 건축적 사고에 따라 형성된 집단 주거단지이다. 비록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도시 근교의 예술인촌이라는 상징성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성이 어떻게 집단주거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연구대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연구목적은 도시근교 예술분야 전문가 집단

의 전원주거단지에 대한 배치특징·주거형태·평면·내부공간 구성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시근교 예술인 마을에 대한 새로운 설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대상 마을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주택의 현황을 조사하여 각 공간별 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현장실측조사와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2. 계룡산 도예촌의 배경 및 환경

2.1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

계룡산의 동서남북에는 동학사, 갑사, 신원사, 구룡사(지)가 각각 자리잡고 있는데 바로 구룡

* 정희원,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석사과정

** 정희원,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사지가 있는 마을이 상신리이다.

상신리는 전통마을의 원형을 간직한 마을로서 조선시대 철화사기의 중심지가 계룡산 일대로 옮겨지면서 경기도 광주군 분원읍과 함께 조선조 도자기 생산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철화 기법은 청자의 발생지인 전남 강진군 대구면으로부터 부안군 산내면으로 계승되다가 계룡산에서 찬란한 도자 문화를 꽃피웠다. 이 일대의 가마터에는 청자·흑유·분청·백자 등 한곳에서 제작된 다종의 기물이 나오고 철화 분청사기는 다른 곳에서는 변조한 예가 없기 때문에 ‘계룡산 분청’이라는 별칭이 붙었다.¹⁾

1984년 대전 도자기인 들의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어 1987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뜻을 같이하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 형성되었다. 작가모임은 우선 대지 구입은 국유지를 임대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도 등에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陶藝史의으로 장소성이 있는 현재의 위치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1992년에 대전·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의 도예인 18명이 5,4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후 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대지기반시설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젊은 작가들은 대지기반이 조성된 직후 스스로 터를 닦고 공방이 부속된 주택을 직접 계획·설계한 후 연차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도예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전업작가로서 활동하는 젊은 도예가들이 건축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계획·설계, 건축한 예술인 마을로서 전업도예가 전원주택 단지라 할 수 있다.

2.2 환경 및 현황

1) 자연환경

계룡산 도예촌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있다. 대전에서 공주에 이르는 국도 32호선의 동학사 입구 박정자 삼거리에서 반포쪽으로 2km쯤 가서 왼쪽으로 돌아 하신리를 지나 3km 오르면 계룡산 지맥의 북쪽끝 부분에 해당하는 수정봉의 동쪽 말단부에 상신리가 있고 상신리 서북쪽 산기슭에 남향으로 도예촌이 자리 잡고 있다.

상신리는 계룡산이 금강에 연결하면서 산세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변하면서 작은 지맥이 뻗어 내리고 그 사이에 깊고 험한 산곡(山谷)을 형성하고 있다. 상신리의 주변지형을 보면 서쪽은 남북으로 전개된 계룡산의 주맥이 400m 높이를 유지하면서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이 주맥의 서쪽방향에는 조그만 구릉이 돌출되어 있고 전개되는 산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쪽은 멀리 계룡산의 주맥에서 동으로 돌출된 350m 높이의 산봉이 전면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하단에 형성된 산곡간(山谷間)의 분지가 계곡의 하천을 따라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어 확 트인 시야를 보인다. 그러한 지형은 북쪽도 비슷하다. 북쪽은 남북으로 전개된 계룡산의 주맥에서 동으로 돌출되는 주맥이 돌출형태를 이루어 높은 산봉을 이루고 있는데 다만 남쪽보다 더 넓은 시야를 이루고 있다. 동쪽은 산곡이 동으로 전개되어 있는 관계로 서쪽의 계룡산 주맥에서 발원된 하천을 따라 트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 동쪽도 작은 구릉에 의해 접점이 막힌 원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세로 말미암아 상신리는 삼각형태의 분지를 이룬 형국인데 동쪽의 입구지점에 상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그 이서(以西)에 약간의 공지를 둔 후 다시 민가가 조밀하게 들어차 있는데 동리의 가운데에 표고 180m의 구릉이 자리하고 있고 상신리의 민가는 이 구릉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²⁾

계룡산 장군봉·신선봉 뒤편에 위치한 상신

1) 이재황, 『계룡산 분청사기 재료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1997

리는 산신제, 장승제를 잘 지켜온 전통 마을이다. 상신리 주변의 반경 7km 이내는 도자사에 있어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일본의 도조 이참평공의 비가 세워져 있고, 조선 초에서 중기까지 오직 이곳에서만 생산된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생산가마인 사적 333호 가마터가 있다.

2) 거주인구 현황

상신리 거주인구는 2000년 6월 현재 342명이며, 이중 남자는 184명 여자는 158명이다.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0명으로 상신리가 속해있는 반포면의 평균4.2명 보다 적다.3)

마을의 공간구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문·사회적 요인은 거주자들의 씨족관계이다. 상신리는 하나의 성씨가 마을의 제반사항을 주도하는 동족마을이 아니며 몇 개의 성씨가 모여서 각각의 공간을 확보하며 공존하고 있다. 상신리에는 주로 이씨(21호), 박씨(14호), 최씨(11호)의 가족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각성(各姓)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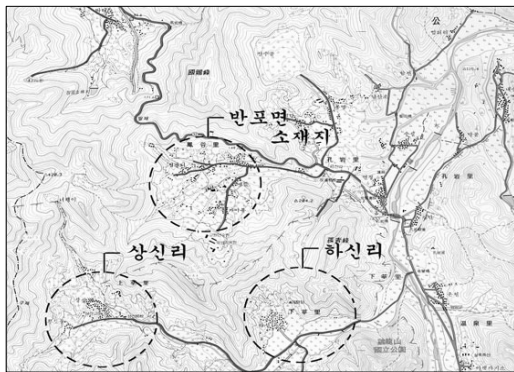


그림 1.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부근지형도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전통 마을인 상신리에 위치한 도예마을은 총 1931.530㎡로서 15가구에 15세대이며 1세대 당 평균건축 연면적은 128.77㎡이다.

2) 공주대학교 박물관, 『구룡사지』 1995
 3) 공주시, 『공주시 통계연보 제6권』, 2000, 6

3. 계룡산 도예촌의 주거 및 주택 현황

계룡산 도예촌이 속해 있는 상신리는 계룡산과 주변의 많은 도요지, 사찰 등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지금도 산신제를 모시는 전통마을이다. 이 마을의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도예촌은 기존 마을과 다름없이 도예가의 안목에 따라 자연지세와 향을 고려하여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단지계획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의 수목을 보호하면서 단지전체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다. 단위 주거공간 역시 도시 주택단지와 같은 규칙적인 배치 형태를 갖고 있다. 다만 단지 중심부에 공동공간으로써 주차장 운동장을 배치하였으며 또 하나의 특징으로 공동 가마를 배치한 점을 들 수 있다. 주택외부공간의 형태는 도예촌의 특성상 규칙적인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개성에 따라 독특하게 건립된 것이 특이하다.

3.1 거주자의 특성

1) 세대주의 연령구성

세대주의 연령은 40대 초반이 5명 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 후반이 4명 36%, 30대 초 2명 18%의 순이다.

2) 가족구성

가족수는 4명인 경우가 4가구, 3명도 4가구, 2명 2가구, 독신1가구로 가족구성은 부부에 1자녀, 혹은 2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1가구, 독신1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3) 세대주 직업

세대주의 직업은 전업작가가 9명 80%로 가장 많으며, 대학교수가 2명 20%이다. 이는 도예촌 창립의 뜻이 계룡도예의 맥을 잇는데 중점을 두었음으로 도예가 중에서도 주로 전업작가들이 중심이 되었다.

전업작가들은 작품활동과 더불어 문예교실, 학교 등에 강사로 출강하기도 하며 교수로 분류된 세대주도 도예 전공교수이다. 편의상 직업을 분류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세대주의 직업



그림 2. 도예촌 배치도

이 모두 도예가 라고 할 수 있다.

3.2 배치계획 및 외부공간

주택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으며 동측과 남측에 넓은 마당을 갖고 대문이 없이 도로에서 울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우리나라 전통농촌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웃과는 담장 없이 낮은 수목을 식재 하거나 경계만 표시하는 작은 돌담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마당은 정원으로 가꾸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고 흙 마당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택에서는 옥외수도, 장독대·야외벤치 등의 시설을 갖고 있다. 옥

외수도는 4가구가 보유하고 있으며 장독대는 6가구·야외벤치는 2가구가 설치 이용하고 있다. 도예촌의 모든 세대에 개인용 가마를 갖고 있으나 옥외용 가마를 보유한 주택은 5가구다.

또한 옥내 공방과 옥외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주택은 5가구로서 옥내공방, 옥외작업장, 옥외가마를 연계하여 도예장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룡산 도예촌이 주거생활 보다는 작품창작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내부공간

일반적으로 주택의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거실·주방+식당, 침실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분류하였지만 주 건립목적이 도예창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주택에서 거실이 주거의 중심인 경우와는 달리 공방이 주택의 중심을 이루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림 3. 외부공간이용사례

계룡산 도예촌의 공간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면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성호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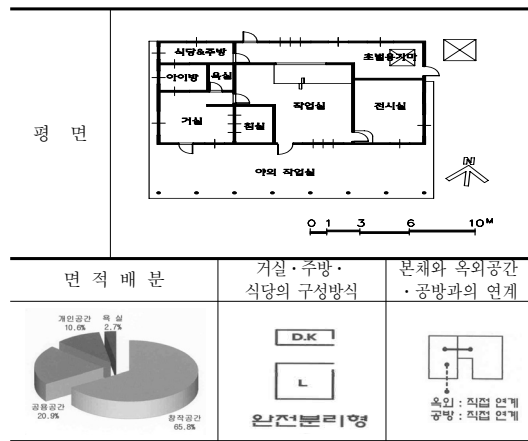
평면의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T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평면의 구성방식은 도예가 주택답게 공방, 전시실, 가마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연면적은 149.73㎡이며 거실+식당+주방 31.28㎡, 침실2개 15.90㎡, 욕실 4.00㎡, 공방·전시실·가마 98.55㎡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부분은 거실을 중심으로 2개의 침실과 공용 욕실이 배치되고 주방과 식당은 전통가옥의 부엌과 같은 형태로 거실 침실과는 벽으로

분절되었으나, 집주인의 작업공간인 공방·가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공방은 거실에서 직접 연결되며 주택내부에 초벌용 가마를 갖추고 있고 본인의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실은 다른 공간과 벽으로 구획되어 외부공간과 직접연결하고 있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은 현관이 없이 거실에서 마당으로 직접 출입하도록 계획되어 내·외부공간의 일체감이 두드러진다.

표 1. 평면도 및 공간분석



2) 정광호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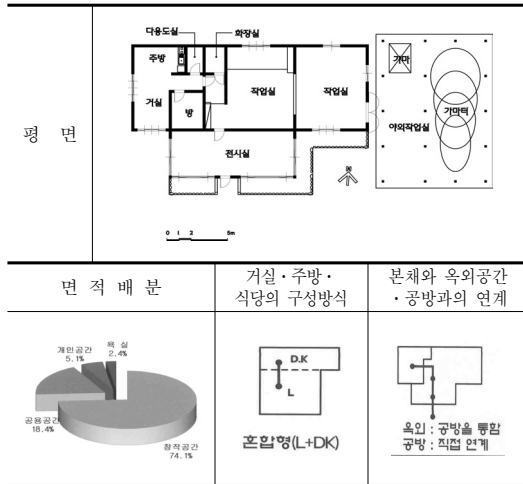
평면 형태는 T자형의 전면에 전시실을 배치하여 T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축연면적은 180.86㎡이며, 실별 면적배분은 거실+주방+식당 29.64㎡, 침실 9.24㎡, 다용도실 3.6㎡, 화장실 4.32㎡, 공방+전시실 134.06㎡이다. 초벌가마와 본가마는 교육장과 함께 마당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 구성방식은 주택중앙의 공방을 중심으로 전면에 전시실이 좌측에 제2공방이 위치하며, 우측에는 주거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주거부분은 거실+주방+식당, 침실이1개, 다용도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부분은 중앙의 공방과 전시실을 통하여 마당과 연계되거나 거실에서 마당으로 직접 연계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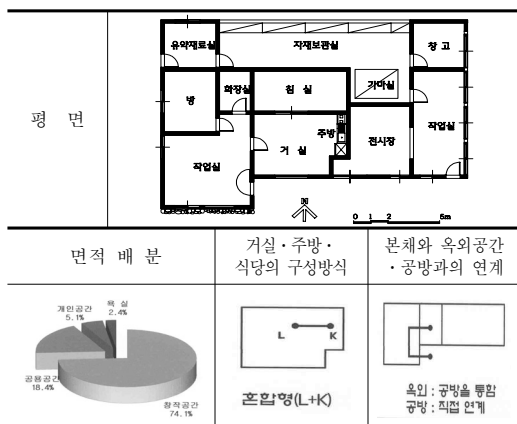
표 2. 평면도 및 공간분석



3) 이재황씨 가옥

평면의 형태는 一자형으로 볼수도 있으나 ㄱ자형으로 분류된다. 건축연면적은 160.14㎡이며 거실+주방 21.20㎡, 침실 15.12㎡, 욕실 5.40㎡, 공방+전시실+기타 118.42㎡이다. 평면의 구성방식은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공방을 갖추고 있다. 주거부분은 좌측면의 공방을 통하여 중앙에 거실+주방을 배치하였고 이 공방에서 침실과 화장실을 연계하였으며, 거실 윗쪽에 침실을 배치하였다.

표 3. 평면도 및 공간분석



주거공간과 우측의 전시실, 공방, 가마 등과 는 벽으로 구획하여 분절시켰으나 좌측의 공방은 거실, 침실, 화장실과 직접 연계하여 창작활동 중심의 주거생활을 엿볼 수 있다. 주거부분에서 외부공간과는 작업실을 통하여 연계토록 계획되었다.

4) 김준성씨 가옥

평면 형태는 一자형의 형태로서 2층집이다. 건축연면적은 118.9㎡이며, 거실+식당+주방 23.25㎡, 침실22.58㎡, 욕실2.55㎡, 방+전시실 70.52㎡으로 구성되었다. 평면의 구성방식은 1층에 공방 2실을 배치하고, 2층에 주거공간을 배치하였다. 주거공간은 거실+식당+주방을 전면 배치하고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침실이 1개씩 위치하고 있는 단순한 평면형태이다. 2층 주거부분과 외부공간과는 외부계단을 통하여 연계시키고, 공방은 마당과 직접연결되도록 하였다.

3.4 입면형태

거의 대부분 주택의 주요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만들었다. 입면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정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굴절형, 변형의 경우도 정방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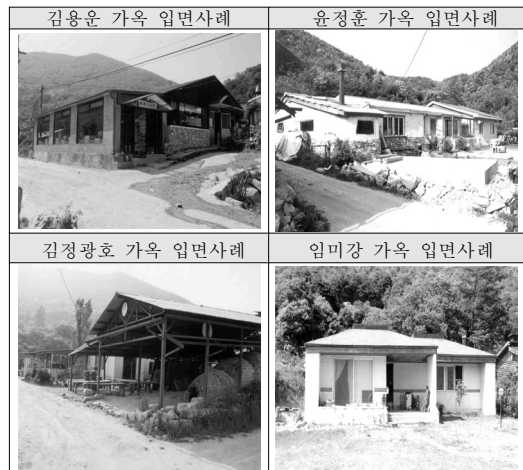


그림 4. 입면사례

창문 형태 또한 규격화되어 다양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획일화 되어있다. 외부마감재료는 벽체의 경우 조립식 경량판넬 위에 페인트마감이 대부분이며 치장을 위하여 적벽돌 치장 쌓기를 한 경우도 있으나 조화롭지는 못하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형 지붕으로서 마감재료는 경량판넬, 아스팔트성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의 경우 스테이트를 사용한 예도 있다. 입면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단순 간결하게 규격화되어 있어 미적인 개념보다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입면형태가 단순화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5 연구대상 주택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분석

1) 평면유형별 특성 및 입면분석

① 一자형

도예촌 주택의 평면유형으로는 ‘一’자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룡산 도예촌이 도예창작활동을 위한 공방중심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며 평면계획으로는 단순화된 형태이다. 창작활동을 하는 도예가라도 건축가의 도움이 없으면 특색 없는 단순화된 주거형태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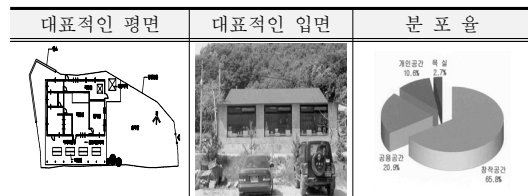
주거 부분은 단순한 식사·수면·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적·사적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건축의 입면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구조체가 조립식 경량철골조인 이유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전업 작가의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창문의 형태도 조립식으로 규격화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외부마감은 치장벽돌 쌓기나 황토벽 바름이 몇 집 있으나 조립식 판넬이 주종을 이루는 점도 같은 요인으로 보인다.

지붕은 一자형 주택의 기본인 박공지붕 형태이나 지붕창이나 기와 아스팔트성글 등을 사용

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이나 스테이트 지붕을 사용한 것도 있다.

표 5. 一자형 주택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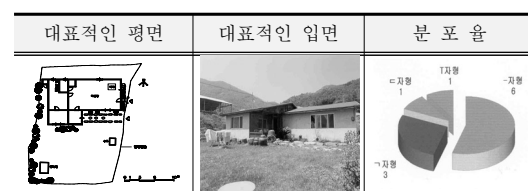


② ㄱ자형

一자형 평면에 공방이나 전시실 등이 본체에 덧붙여진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면 형식이다. ‘ㄱ’자형의 특징은 돌출부와 一자형 사이에 테라스·데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마당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을 이 강하게 연결시켜 기능성을 강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ㄱ’자로 돌출된 부분이 외관디자인의 강간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一’자 형태에서 한단계 변화를 추가하여 다양한 입면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ㄱ’자형의 입면도 一자형과 같이 평면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출 되었을 뿐, 특별히 아름답게 강조된 미적 요소는 찾아 볼 수 없다.

표 6. ㄱ자형 주택의 사례



③ T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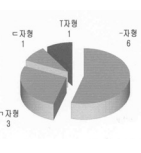
‘T’자형은 ‘一’자형 평면의 중심부 전면에 전시실이나 거실을 돌출시킨 형태이다. 전면에 중요 공간이 돌출됨으로써 그 좌우 다른 생활 공

간에 일조나 조망이 분리하게 되는 결과를 주게 된다. 이 평면의 경우 모서리 부분의 외부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지 않고 다만 마당의 연장인 외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입면에서는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T자형 평면이 그대로 외관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나름대로 一자형보다는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변화의 정보에 비해 기능성이나 입면구성의 다양함이 부족하다.

전면 돌출부의 파사드 부분 박공지붕이 외관 형태를 결정짓는 강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박공부분이 조형성을 나타내 줄 정도로 형태적인 정리는 부족한 상태이다.

표 7. T자형 주택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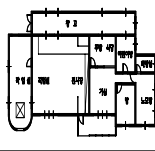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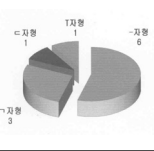
대표적인 평면	대표적인 입면	분포율
		

④ ㄷ자형

이 평면은 공방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전시실과 주거부분이 양쪽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공방과 주거부분이 벽체로 단절되어 각 부분이 외부공간과 별도로 연결되어 있다. 양측면의 돌출부분 사이를 ‘ㄱ’자형이나 ‘T’자형에서처럼 테라스나 데크로 사용하지 않고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외관은 양측의 돌출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으며 돌출부의 정면박공 파사드가 강한 디자인의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외관형태는 강한 디자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과 특별하게 구분될 정도의 특징이나 형태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변화 없는 단순한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표 8. ㄷ자형 주택의 사례

대표적인 평면	대표적인 외관	분포율
		

2) 공간별 면적 배분 분석

도예가의 창작공간이면서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택의 공간계획은 활용의 특징에 따라 일반주택과는 공간구성이 다르다.

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일반주택에서 볼 수 없는 공방, 전시실, 가마와 같은 창작 공간이 평균 111.16㎡(63.5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거실, 주방, 식당과 같은 공적공간으로 31.62㎡(18.18%)이다. 그 다음으로 사적공간(침실·서재)이 25.33㎡(13.84%), 기타 공간(욕실·현관·창고 등) 7.49㎡(4.26%)이다.

도예촌의 성격이 주거생활보다 작품창작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차이점이 그리 크지 않는 것은 이곳에 사는 주민이 30-40대와 어린이로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원룸형태의 주거양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각 면적 분포현황, 각 공간의 면적배분과 연면적에 대한 평균면적의 구성비는 다음 표 9와 같다.

3) 주요주거공간의 형태분석

주택의 공간별 특성은 시대와 자연환경·문화와 관습,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많은 형식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온돌방, 대청마루, 마당공간, 기와지붕, 창호지문 등의 자연과 조화로운 주택의 형식을 갖고 있다. 특히 전원주택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신에 따라 현대인의 자연 및 전통 회귀적 주거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전체하에 주요공간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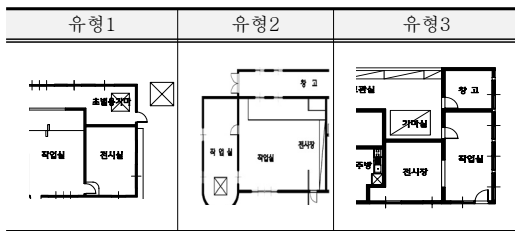
표 9. 각공간의 구성비 분석면적(면적비)

실 명	전 체	평 균	최 소	최 대
공방· 전시실	1222.76㎡ (63.31%)	111.16㎡ (63.31%)	49.50㎡	245.63㎡
거실&주방&식당	347.77㎡ (18.00%)	31.62㎡ (18.00%)	14.19㎡	76.42㎡
침 실	278.60㎡ (14.42%)	25.33㎡ (14.42%)	5.75㎡	27.68㎡
욕 실	57.43㎡ (2.97%)	5.22㎡ (2.97%)	1.98㎡	12.45㎡
현 관	14.68㎡ (0.76%)	1.33㎡ (0.76%)	4.60㎡	10.08㎡
기 타	10.29㎡ (0.53%)	0.94㎡ (0.53%)	1.44㎡	5.25㎡
계	1931.53㎡	175.60㎡	77.46㎡	377.51㎡

① 공방 및 전시실

공방의 면적은 50~100㎡이하 5세대45%로 가장 많으며, 100㎡~150㎡이하 3세대(27%), 150㎡이상 2세대(18%), 50㎡이하 1세대(9%)이다.

표 10. 공방 전시실의 유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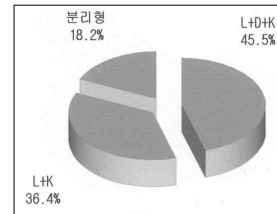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부분 전시실과 공방을 직접 연결되게 계획하였다. 또한 모든 세대가 도자기 가마를 갖추고 있으며 가마의 위치는 창작 및 전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방과 가깝게 연결되는 외부공간에 위치해 두고 있다.

② 거실

거실의 구성방식은 거실, 식당, 주방이 하나의 공간에서 벽 구분 없이 사용하는 거실+식당+주방형, 거실+주방형, 그리고 거실독립형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도예촌에서의 거실형태는 거실+식당+주방형이 5세대(45.4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거실+주방형 4세대(36.36%), 거실

독립형 2세대(18.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예촌에서 이와 같이 거실독립형이 적은 것은 창작공간에 대한 배려 때문에 거실, 식당, 주방을 별도로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적절한 실 배분의 결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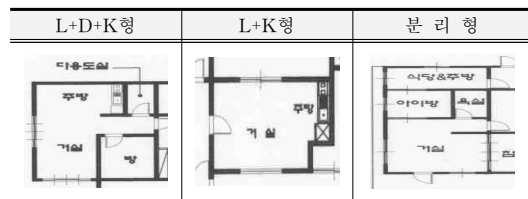
표 11. 거실의 구성비



③ 식당 및 주방

식당의 구성방식은 L+K형이 4세대(36.36%)로 가장 많으며, L+D+K형5세대(45.45%), 분리형 2세대(18.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주방+식당의 유형사례



④ 침실

대부분 방의 개수는 방1개가 5세대(45.50%)로 가장 많으며, 2개가 4세대(36.40%), 3개가 1세대(9.1%), 4개가 1세대(9.1%)로 도예촌 주택에서 방의 개수는 평균 1.8개이다.

표 13. 방의 평면유형



이 도예촌 주택에서는 침실의 수나 규모가 작아서 안방, 사랑방, 큰방, 작은방과 같은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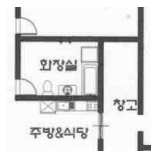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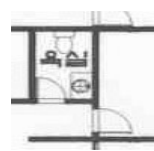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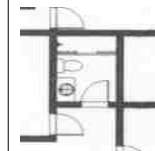
트나 현대 도시주택에서 볼 수 있는 안방욕실이나 드레스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업 작가의 경제적 현실성이 침실을 크게 만들거나 여러 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욕실

욕실의 면적은 12.45㎡에 1.98㎡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면적은 2.68㎡이다.

욕실 평면은 하나의 공간에 세면기, 변기, 욕조가 함께 배치된 단순한 형태이다. 소규모 공간이어서 샤워부스나 욕조가 없이 화장실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형식도 다수 있다. 주거공간의 구석에 배치하여 현대적 욕실의 개념이 아니며 공방에 욕실을 배치한 예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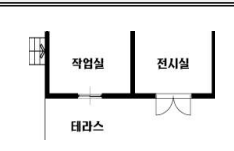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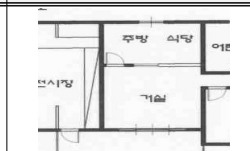
표 14. 욕실 평면의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⑥ 데크와 내부공간과의 연계

데크를 설치한 주택은 4개(36.36%)이며, 데크 없이 마당을 직접사용하는 주택은 7개(63.64%)이다. 전원주택에서의 데크는 내부공간과 마당을 연결시켜주는 의미보다는 차를 마시고 담소하며 식사 등의 가족단위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공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건축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첨가하거나, 건축 후 추가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

표 15. 데크 이용 현황

유형 1	유형 2
	

면적은 아주 작은 뒷마루와 같은 것에서부터 주택에 붙은 마당 일부에 바닥재료를 깔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반 이상은 마당을 데크와 같은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4. 분석의 종합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 본 연구대상주택의 분석 내용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계룡산 도예촌에 담긴 도예가들의 건축개념과 건축적 의도를 파악하고, 또한 오늘을 살면서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이들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결과를 종합한다.

4.1 평면의 형태 및 특징

도예촌 주택은 전반적으로 단순화된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가의 조언 없이 기능우선주의적인 건축주의 의도가 평면에 그대로 표현된 결과라 하겠다. 다양한 현대주택의 공간구성이 보여주는 경향과 비교해 볼 때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도예촌 건축주의 성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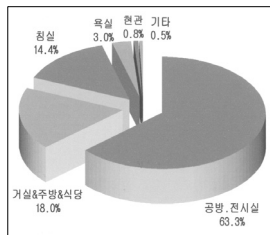
도예촌 주택의 평면은 ‘一’자형, ‘ㄱ’자형, ‘T’자형, ‘ㄷ’자형의 4가지 유형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一’자형 평면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주택의 평면구성을 근저에 두고, 한편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대중화되었던 문화주택의 평면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주택이면서 근대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치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을 가장 크게 고려한 까닭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방중심의 건축 평면이 만들어지게 만들어 지게된 요인으로는 건축주의 선호도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첫째, 도시주택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도예창작이라는 예술활동에 따른 옥외 작업장·가마 등의 공간확보를 위한 실용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마지막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건축을 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2 공간별 면적 배분 분석

표16. 각공간의 평균분포율



내부공간은 창작공간, 공공 공간, 사적공간, 기타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공간별 면적 평균은 공방과 전시실을 포함하는 창작공간이 가장 큰 111.16㎡(63.51%)이다. 그

다음으로 공적공간이 31.62㎡(18.18%)이고, 사적공간 25.33㎡(13.84%), 기타공간 7.49㎡(4.26%)의 순이다.

창작공간은 독립되거나 거실과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한 2가지 형태가 있다. 옥외 작업공간의 경우와 가마와 동선을 가깝게 만들어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 공간은 거실과 주방·식당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사적 공간인 침실 1실의 평균 면적은 13.93㎡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실의 배치에도 위치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전업작가들이 창작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공방을 중심으로 주택을 계획하고 침실은 단순히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관이 없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직접 연계한 형식은 전통주택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전원주택에서 바람직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4.3 주요공간별 형태분석 특성

공방의 구성방식은 주택내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면적에서도 가장 크게 할애되도록 하였다. 공방과 가깝게 연결하여 전시실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치계획은 전시기능을 별도로 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공방작업과 작품 전시·홍보를 하나의 전시시스템으로 생각하는 배치계획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거실·식당·주방의 구성방식은 거실+식당+주방 또는 거실+식당의 형태가 배치계획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공방+전시공간 중심의 배치계획 때문에 주거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하나의 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침실은 부속 화장실이나 드레스룸이 없는 단순 형태이며 배치에서도 특별히 고려된 흔적을 볼 수 없다. 이 역시 주거공간 계획이 작업공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일반적인 형태의 욕조·변기·세면기만을 갖춘 단순 형태이며 현관은 2세대만이 있고 대부분의 세대는 주거공간이 마당과 직접 연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예술가들의 자력에 의해 만들어진 계룡산 도예촌 집단 주택단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다. 동일분야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예촌은 건축가의 조력이나 도움 없이 계획, 설계, 건립된 마을이다. 연구 배경에는 예술가 특유의 건축적 특성과 개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도예촌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는 조선시대 철화자기의 중심지인 계룡산 인접지의 전통 마을에 의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장소적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둘째, 주거배치는 구릉을 배경으로 중심부에 공동공간인 운동장과 전시장을 두고 그 주위에 각 주호를 배치하였다. 각주호의 배치는 모두 남향으로 하고 단지내 담장은 낮은 울타리 또는

낮은 수목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정도이다.

셋째, 평면은 크게 ‘一’자형, ‘ㄱ’자형, ‘T’자형, ‘ㄷ’자형으로 분류되며 평면계획은 작업실과 전시실을 중심으로 거주공간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실과 전시실은 주택 내에서 가장 큰공간이 되게 하고 이 두 공간은 긴밀하게 인접시켜 작업과 전시가 하나의 전시시스템이 되도록 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각 주호에는 옥외 가마를 두고 있는 것도 도예촌의 특징중 하나이다.

넷째, 주택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공간은 작업실과 전시실이다. 주택 내에서 이 두 공간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63.51%이다. 이러한 점유공간은 일반 도시 주택에서 볼 수 없는 공간계획이다. 도예전문가 집단의 주택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주택 내에서 거주공간의 점유면적은 36.49%로 일반주택에 비해 작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공간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주거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옥외공간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주택의 외부형태는 도시의 대중화된 주택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형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용 재료는 조립식 경량철골 구조에 벽돌을 혼용하였으며 지붕재료는 아스팔트 성글, 조립식 판넬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하고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다가 건축가의 조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각예술을 창작하는 작가라 하더라도 건축가의 조언이 없으면 창조적인 건축형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공주대학교 박물관, 『구룡사지』, 공주시, 1995
2. 충청남도, 『계룡산지』, 1994
3. 이재황, 『계룡산 분청사기 재료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1997
4. 공주시, 『공주시 통계연보 제 6권』, 2000.6